

허균(許筠)과 한중문학교류*

—만명(晩明)시기 우순희(虞淳熙)를 중심으로—

안나미**

<차 례>

1. 서론
2. 허균과 명(明) 문인의 네트워크
 - 1) 주지번(朱之蕃)
 - 2) 구탄(丘坦)
3. 명 문인 네트워크 속의 조선 문학
 - 1) 우순희(虞淳熙)의 <조선영서(朝鮮詠序)> 분석
 - 2) 우순희를 중심으로 한 문인조직
4. 결론

<국문초록>

임진왜란 시기에 외교사절단으로 명 나라를 방문하거나 명 사신을 접대한 조선 문인에 의해 한중 문학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허균은 적극적으로 명에 조선의 문학을 소개하였다. 허난설헌의 시집뿐만 아니라 조선의 시를 정리하여 조선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명 문인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허균을 직접 만난 명 사신 주지번(朱之蕃)과 구탄(丘坦)을 중심으로 명 문단의 문인 결사 조직을 통해 조선의 문학이 전파되었다.

그리하여 명 나라의 문인들 중에는 조선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조선의 문학을 접하여 함께 토론하고 비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들이 다시 다른 문인들에게 조선의 문학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중 주지번과 구탄과의 관계망 안에 있는 명 문인 우순희(虞淳熙)는 <조선영(朝鮮詠)>이라는 시집에 서문(序文)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2541).

** 성균관대학교 강사

붙이기도 했다. 우순희는 당시 문학의 중심지였던 강남에서 영향력 있는 문인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의 허균을 직접 만난 명나라 사신 주지번과 구탄이 2차로 그들의 문인들에게 조선의 문학을 전파하고 다시 2차 전파자들이 3차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명의 문인결사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허균(許筠), 임진왜란, 한중문학교류, 만명(晩明), 우순희(虞淳熙)

1. 서론

임진왜란 시기에 명 문인들과 직접 교류한 조선 문인들 중에서 허균은 명 나라 문학을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 문학을 명 문단에 소개하는 데 앞장 섰다. 명 사신들에게 조선 문인의 시를 모아서 전해주기도 하고 누나 허난설헌의 시집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때 허균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조선 문학에 관심을 가진 명 문인은 조선에 사신으로 왔던 주지번(朱之蕃)과 구탄(丘坦)이다. 주지번과 구탄은 조선을 한 번 방문한 이후 조선 문인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조선 문학을 명 문단에 소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 문인들 중에는 조선 문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명에 들어온 조선 문학을 접하며 함께 토론하고 비평하였고, 조선 문학을 출판하면서 전파하였다.

명 문인 우순희(虞淳熙)의 문집 『우덕원선생집(虞德園先生集)』에는 <조선영서(朝鮮詠序)>가 남아있는데, 이 서문을 살펴보면 조선에 사신으로 왔던 구탄을 비롯해 반지향, 원광도, 원중도 등 명 문단의 주요 인물이 함께 거론되었고 허균을 언급한 사실도 나타나 있다. 주지번과 구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우순희에게까지 조선 문학이 전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순희는 만명 시기에 향주를 중심으로 한 문인결사조직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우순희를 통해 조선 문학이 명 문인들에게 전

파되는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허균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명 문인 주지번과 구단의 관계망 속의 우순희를 중심으로 <조선영서(朝鮮詠序)>를 분석하고 우순희의 문인결사조직을 통한 조선 문학의 전파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허균과 명(明) 문인의 네트워크

1) 주지번(朱之蕃)

허균은 명 사신을 네 번 접반(接伴)하고 세 번 연행하면서 많은 명 문인들과 교류했다. 그중 주지번은 허균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다. 1605년에 정사로 조선을 방문해 허균을 만나 조선 문학에 관심을 가지며 명에 돌아가서도 조선 문학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주지번은 당시 한림원 수찬으로 명 문단에서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주지번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조선 문학을 접하게 된 명 문인 중에서 우순희에게 이어지는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1) 이정기(李廷機, 1542~1616)는 예부 상서(禮部尙書) 겸 동각대학사(東閣大學士)를 지냈으며 명 문단의 주요 인물로, 허균의 문집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서문을 써준 바 있다.

난우(蘭嶠) 주 태사(朱太史)가 『부부고(覆瓿藁)』라는 4부(部)로 된 책 1권을 가지고 와서 나와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내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조선에 가서 그 나라의 많은 관신사(冠紳士)들과 추종했습니다. 그 중에서 허씨(許氏) 집안이 그 장점을 독차지하였는데, 이는 바로 그 계장원(季壯元)의 문집입니다. 그의 문(文)은 우여완량(紆餘婉亮)

하여 감주(兪州)의 만년의 작품과 같고, 그의 시는 창달섬려(淸達瞻麗)하여 화천(華泉)의 청치(淸致)가 있으므로, 나는 그옥이 기뻐하여 그 전집(全集)을 구했더니, 금년에 비로소 1권을 서울에서 보내와 저리(邸吏)가 전달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매우 진지한 편지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해내(海內) 대방가(大方家)의 한마디 말을 빌려 책머리를 빛나게 해달라.’는 청이었습니니다. 노사(老師)가 비록 구학(丘壑)에 물러나 있지만 예림(藝林)을 주맹(主盟)할 분은 공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한 말씀 포장하는 글을 써서 먼 곳 사람의 정성을 위로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¹⁾

이정기는 이 서문을 1613년에 썼다. 1606년에 주지번이 사신이 되어 허균의 시문을 읽고 허균의 전집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던 허균은 누나 허난설헌의 시집을 대신 주었다. 주지번이 연이어 허균의 출판된 시집을 보고 싶어하다가 허균에게 신라때부터 당시까지의 시가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써달라고 부탁했다.²⁾

주지번이 허균을 만나 조선의 시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허균은 1613년 문집 1부를 중국에 있는 주지번에게 보냈다. 주지번이 허균 문집의 서문을 당대 일류 문사인 이정기에게 부탁하고 주지번을 통해 이정기가 허균의 문집 서문을 써준 것이다. 이정기는 우순희와 1583년 계미과 전시금방(癸未科殿試金榜)에 함께 합격한 동방(同榜)이다.³⁾ 또 우순희의 문집 권 5에 <역조첩록서(歷朝捷錄序)>가 실려 있는데, <역조첩록>

1) 허균(許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성소부부고서(惺所覆瓿藁序)>. “蘭嶼朱太史持所謂覆瓿稿四部者一帙來. 諗余曰, 僕銜命使東藩, 藩之冠紳士, 雅相周旋, 最其中許氏一門, 尤擅其長, 此其季壯元之作也. 其文紆餘婉亮, 似兪州晚境, 其詩淸達瞻麗, 有華泉雅致僕竊喜之, 求其全集, 今歲始以一部送于京邸吏, 遞至留院, 則其書勤懇. 乞得海內大方家一語, 其卷端, 老師雖退在丘, 主盟藝林, 捨公而誰, 幸備褒褒, 以慰遠誠可乎.”

2) 허균, 위의 책, 권18, <병오기행(丙午紀行)> 3월 27일, 28일.

3) 이정기가 제1갑(第一甲) 사진사급제(賜進士及第) 3명 중 1명으로, 우순희가 제2갑(第二甲) 사진사출신(賜進士出身) 67명 중 1명으로 합격하였다.

은 고충(顧充)이 짓고 이정기가 중정보주(重訂補注)한 것이다.

(2) 고천준(顧天埈, 1561~?)은 1603년 정사로 조선을 방문했는데, 당시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명 문단에서 손꼽히던 문인 고천준을 맞이하기 위해 조선에서는 최고의 문인들로 접반단을 꾸렸고 이정귀의 추천으로 허균도 접반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고천준의 『고태사문집(顧太史文集)』에 허균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곤산인물전(崑山人物傳)』 <고천준> 편에 “여러 조선인이 고천준을 두려워하여 숨을 죽이고 감히 우러러 보지 못했다. (중략) 공이 바라보니 조선의 새로운 장원 허균이었다. 읊은 시는 초초(楚楚)한 것이 음악 같아 공이 마음속으로 혼자 기뻐하여 탄식하며 매우 세밀하여 나라에서 떨치지 못하겠다고 했다.”⁴⁾는 기록이 보인다. 명 문단의 유명 문장가였던 고천준은 조선 최고의 문인들과 시를 수창했는데 그중에서 유독 허균의 시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기록에 남긴 것이다.

고천준은 주지번과 친밀한 사이로, 그의 문집 『고태사문집』 권 8에 주지번에게 보낸 글 <送朱蘭嶼丈擢南院長>이 있는데, 첫 문장에 주지번이 조선에 사신으로 갔다가 시를 가득 가지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⁵⁾ 이 글은 주지번이 고향 금릉(金陵)으로 돌아갈 때 써준 시로, 주지번이 가득 가지고 온 시가 주지번이 조선에 가서 지은 시일 수도 있고, 허균에게 신라때부터 당시 조선 시를 뽑아 달라고 부탁해서 받은 시일 수도 있다. 주지번은 허균을 통해서만 조선의 시문을 모은 것뿐만 아니라, 『동인시화(東人詩話)』를 받고서 유근(柳根)에게 작가의 이름과 호, 그리고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할⁶⁾ 정도로 조선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

4) 張大復, 『崑山人物傳』, 『皇明崑山人物傳』. “諸夷悚服戶部, 屏息不敢仰視, 既出郊, 有冠大冠衣青繡衣, 持簡進者, 公視之, 則彼國新狀元許筠也. 所賦詩楚楚如律, 公心獨喜, 已而歎曰, 其細已甚, 國無振矣.”

5) 顧天埈, 『顧太史文集』 권8, <送朱蘭嶼丈擢南院長> “頃使朝鮮詩滿囊歸膺新擢”

었다.

우순희의 문집에는 고천준 부인의 제문이 실려 있고⁷⁾, 고천준의 문집에 전겸익, 한경(韓敬) 등이 서문을 남겼는데, 한경은 우순희와 같은 문인 결사조직인 방생사(放生社)의 일원이다.

(3) 황여형(黃汝亨, 1558~1626)의 문집 『우림집(寓林集)』 권 28에 <啓朱蘭嶠少宗伯>라는 주지번에게 보낸 글이 보이고, 주지번과 함께 1616년에 풍몽정(馮夢楨)의 『쾌설당집(快雪堂集)』을 각본(刻本)하였다. 황여형의 문집에는 우순희와 주고 받은 편지가 다수 보이며 우순희와는 항주에서 같은 문인결사조직인 방생사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황여형의 글에 특별히 허균이나 조선 문학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지만, 주지번의 관계망 안에서 조선 문학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며 우순희와 긴밀하게 교류하였다.

주지번의 관계망에서는 이정기와 고천준, 황여형이 우순희와 연결되는 인물로 파악되고 있다.

2) 구탄(丘坦)

허균은 1602년 명 사신을 접반할 때 정사 고천준의 종사관으로 온 구탄을 처음 만났다. 1614년에는 허균이 천추사(千秋使)로 북경에 가는 길에 구탄에게 연락해 그해 6월 2일에 배 위에서 다시 만났다.⁸⁾ 구탄과 만

6) 『선조실록』 39년 5월 5일. “前日兩使, 題詩出給, 仍出小帖, 帖云, ‘御製詩·應製詩 暨陽村公歸國所記, 希瞻兩峽見惠.’ 云, 臣令權盼, 謄書兩本, 以待回還時入呈, 故當日兩使到本州後, 權盼即以所謄書兩本, 粧縑以進, 副使則領受, 正使則即招權盼入見, 權盼進前稱謝而出, 正使設宴前, 招臣入見, 親授昨日所呈東人詩集. 曰, ‘各人名號·出處, 一一書示.’ 云, 臣於別紙, 逐名開錄以呈.”

7) 虞淳熙, 『虞德園先生集』 권16, <祭顧太淑人文>

8) 이때의 기록은 허균의 저작으로 남아 있지 않으나, 당시 서장관으로 연행단에 참여한 김중정의 『조천록(朝天錄)』에 자세히 남아 있다.

난 후 허균은 다음해인 1615년 동지사겸 진주부사로 또 연행을 하면서 구탄을 만나고자 했다.

이때의 기록인 『을병조천록』의 두 번째 시가 <지난해 강을 건너는 날 강가 언덕에서 검무를 추는 놀이 잔치에 초청되어 망강사에서 시를 지어 서로 주고받았다. 올해 또 외람되이 사신이 되어 거둬 압록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구공이 무예시험을 몽대에서 베풀고 요양에 격서를 보내려다가 전하지 못한 지난 일이 느낌이 있어 지음>⁹⁾이다.

이 시의 제목에서도 작년에 강을 건너는 날 잔치에 초청되어 망강사에서 시를 지어 서로 주고 받았다고 표현했으며, 시의 첫구절에도 전년에 만났다고 했다. 허균이 1615년에도 구탄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구탄은 이탁오, 원굉도 형제와 가까운 사이이며 공안과 포도사(葡萄社)의 일원으로 공안파의 핵심 멤버이다.¹⁰⁾ 허균은 1602년 공안과 중심 인물인 고천준과 구탄을 처음 만난 후, 1614년에 구탄과의 만남을 요청해서 다시 만나 누나 허난설헌의 시집을 전해주었다. 구탄은 공안파 주요 인물이었으나 유격장군으로 요동에 오래 머물며 국경을 지키는 동안 명 문단의 중심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관직도 높지 않지만 공안파 문인들의 관계망에 여러번 포착된다. 여기에서는 우순희에게 이어지는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반지항(潘之恒, 1556~1622)은 명 문단의 희곡이론가이며 일찍 왕도곤(王道昆)에게 사사하고 왕세정에 문하에 들어갔으나 원굉도 형제들과 교류하며 공안파 문인으로도 활동했다. 반지항은 구탄의 관계망 내에

9) 許筠, 『乙丙朝天錄』, <客歲過江之日, 丘遊戎邀宴望江寺賦詩相贈, 今年又叨使价再涉鴨江, 則丘公以試武舉蒙臺, 檄往遼陽, 不獲屬舊會感而賦之>“崖寺前年會, 幢旒絢塞天, 篇章申契濶, 談笑借留連, 征旆勞重過, 離杯負更傳, 遼關行撤棘, 倘許再登筵.>

10) 안나미, 17세기초 공안파 문인과 조선 문인의 교류, 『한문학보』 20, 2009, 419~451쪽.

서 중요한 인물로, 구탄의 문집 『도요집(度遼集)』에 서문을 써주었다. 1602년 구탄이 조선에 사신으로 갔다온 후, 구탄에게 조선 시에 대한 평을 듣기도 했다.

구장유가 조선의 사신으로 가서 그 군신들을 보니 날마다 시 읊기에 빠져 지내는데, 마디마다 처량하여 망국(亡國)의 음(音)이 많았는데 허씨의 시에는 미치지 못하였다.¹¹⁾

이 글은 반지항의 『공사(巨史)』 외편 권 2에 실린 <조선혜녀허경번집서(朝鮮慧女許景樊詩集序)>의 일부이다. 만력 무신년(1608)에 쓴 것으로 허난설헌의 시집에 서문을 붙인 것이다. 조선에 사신으로 갔다온 후 구탄을 통해 들은 조선 시가 마디마다 처량하고 망국의 음이 많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접반에 나온 조선 문인들의 시에 대해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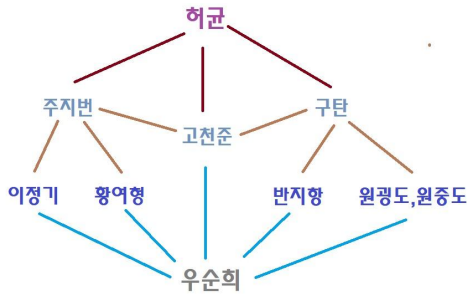
반지항은 공안파의 주요 성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우순희와도 교류했다. 우순희의 『우덕원선생집』에는 우순희가 반지항과 주고받은 편지가 상당수 있으며 우순희의 <조선영서>와 <오영서(吳詠序)>에 구탄과 함께 우순희를 만난 사실이 나타나 있다.

(2) 원굉도(袁宏道)·원중도(袁中道) 형제는 공안파의 핵심 인물로 구탄과 긴밀하게 교류했다. 특히 원중도는 구탄과 가장 가깝게 교류한 인물이다. 구탄이 요동에서 지내는 동안 다른 공안파 문인들이 구탄의 소식을 궁금해할 때 원중도와는 가끔 소식을 이어갔다. 원중도의 문집 『가설재집(珂雪齋集)』에는 구탄과 주고 받은 편지가 많이 실려 있으며 1616년에는 원중도가 구탄의 『도요집(度遼集)』 수초본(手抄本)을 받기도 했다.¹²⁾

11) 潘之恒, 『巨史』外篇, 권2, <朝鮮慧女許景樊詩集序>, “丘長孺充使朝鮮, 見其君臣日耽游詠, 按節淒楚, 多亡國之音, 而不及許詩。”

원광도와 원중도 형제는 우순희와도 교유했다. 우순희는 공안과 성원 들과도 교유했는데, 그중 원광도·원중도 형제와 도망령, 도읍 등과는 항주 남병산 정자사에서 승려 대학(大壑)을 중심으로 만나기도 했다.

허균이 직접 만난 명 사신 중에서 주지번, 구탄, 고천준의 인적 네트워크를 살펴 보면, 이정기, 황여형, 반지향, 원광도·원중도 형제를 통해 우순희로 이어지는 관계를 알 수 있다. 명 문인들의 관계망을 통해 조선 사신이 머물던 북경을 넘어 중국 강남 지역까지 조선 문학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3. 명 문인의 관계망 속의 조선 문학

1) 우순희의 <조선영서(朝鮮詠序)> 분석

우순희는 조선에 직접 다녀온 적도 없으며 조선인을 만난 적도 없지만, 우순희의 문집 『우덕원선생집(虞德園先生集)』 권 5에는 <조선영서(朝鮮詠序)>가 실려 있다.

유독 초 땅 사람 원광도·원중도가 서로 만어(蠻語)로 이야기했는데, 가끔

12) 안나미(2009), 위의 논문, 422~426쪽.

구탄에 대해 말하였다. 구탄과 나는 자(字)가 장유(長孺)로 같다.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뜻은 늘 날아가 고기를 먹는 데 있으니 응당 차수국(遮須國)¹³⁾의 군주였을 것이다. 나와 더불어 (전생에) 해외에서 성장한 자이다.

하루는 사신이 되어 압록강을 건너는데 이때 거센 파도가 막 일어났다. 조선은 해외라 기이한 경관은 없어도 느끼는 대로 읊으면 곧바로 기이한 글이 이루어졌다.¹⁴⁾

우순희는 원광도와 원중도 형제가 가끔 구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구탄의 자가 자신의 자와 같은 ‘장유(長孺)’라고 밝히면서 전생에 차수국의 군주였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영서> 첫 문장에서 신이 내려 우순희의 전생이 소록국(蘇祿國)의 충정왕(忠定王)이었다고 말해주었다고 밝히면서¹⁵⁾ 구탄의 전생을 예상하는 것은 우순희가 불교에 심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글에서 구탄이 조선에 가서 읊은 글은 무엇일까? 1602년 구탄은 정사 고천준의 종사관으로 조선을 방문했다. 구탄이 조선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대로 읊으면 훌륭한 시가 완성되었다고 했다. 먼저 구탄이 조선을 방문하면서 느낀 감정을 시로 읊은 것이라고 볼 때, 구탄이 혼자 지은 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시 고천준이 문장가로 이름을 크게 알리고 있을 때라 조선에서는 고천준과 시를 수창할 수 있는 최고의 문인들로 접반단을 구성하고 이때 명 사신과 조선 접반 문인들이 시를 수창한

13) 조식이 죽은 뒤에 임금 노릇을 했다는 전설 속의 나라 이름이다. 『類說』 권32, <洛浦神女感甄賦>

14) 우순희(虞淳熙), 『우덕원선생집(虞德園先生集)』 권5, <조선영서(朝鮮詠序)> “獨楚人袁二袁三, 蠻語相向, 往往說丘大, 丘大與吾同字長孺. 不識前身何似人, 意每在飛而食肉故應是遮須國主, 與予同長海外者也. 一日騎使星飛渡鴨綠, 於時暴鯨方吐, 朝鮮海外適無奇觀, 感而吟嘯, 翻成奇語.”

15) 우순희(虞淳熙), 위의 책, 권5, <조선영서(朝鮮詠序)> “歲辛卯, 有神降於孫氏之室者, 好言人一塵兩塵前事, 說予前身蓋蘇祿忠定王也.”

것을 『황화집(皇華集)』으로 남겼다. 『황화집』에는 당시 정사였던 고천준의 시가 남아있지만 종사관인 구탄의 시는 보이지 않는다. 정사와 부사 중심으로 시를 읽고 관직이 없는 구탄의 시는 실리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글에서 구탄이 조선에 가서 읊은 글은 자신이 조선 최고의 문인들과 만나 시를 수창한 것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탄은 이때 이정귀(李廷龜), 허균, 박동열(朴東說), 이안눌(李安訥), 홍서봉(洪瑞鳳), 김현성(金玄成), 차천로(車天輅), 권필(權驛), 이수광(李睟光), 이호민(李好敏) 등을 만났다. 조선 선조 때 목릉성세(穆陵盛世)의 대표 문인들이 모두 구탄과 만나 시를 수창했던 것이다.

기억하건대 임인년(1602, 선조35) 봄, 고 시강(顧侍講)이 조칙을 반포하려 동한(東韓)에 왔을 때 그 일행 중 문장과 글씨로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마성(麻城) 구공(丘公)으로, 초(楚) 땅의 현량(賢良)이다. 그의 시가 나오면 금석(金石)의 소리가 울리는 듯하고 술자리에서 붓을 휘두르면 용사(龍蛇)가 좌중에 가득 꿈틀대는 듯하였다. 이에 동한의 사람들이 다투어 몰려들어 공의 시와 글씨를 베끼느라 종이값이 비싸질 정도였다.¹⁶⁾

1602년 이정귀가 명 사신 일행을 접반할 때 구탄을 만났다. 정사 고천준의 종사관으로 온 구탄이 문장과 글씨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조선 사람들이 구탄의 시와 글씨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구탄과 시를 수창한 조선 문인들의 명단을 보면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었기에 구탄도 흔쾌히 시를 수창했을 것이고, 구탄의 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구탄이 조선에서 상당히 많은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비록 『황화집』에는 실리지 못했지만, 조선 문인들과 주고 받은 시를 잘

16) 이정귀, 『월사집(月沙集)』 권41, <팔억시발(八憶詩跋)> “記壬寅春, 顧侍講頒詔東韓也. 有以詞華墨妙, 延譽於行中者曰麻城丘公, 楚之良也. 詩出而鏗然有聲, 酒間揮灑, 龍蛇滿座, 東韓之人, 爭奔走焉紙爲貴.”

보관해서 돌아갔을 것이며 <조선영서>의 ‘조선영’이라는 제목은 구탄이 조선에 가서 조선 문인들과 주고받은 시라고 예상할 수 있다.

위의 글은 이정귀가 쓴 <팔역시발(八憶詩跋)>의 일부인데, 1616년 구탄은 진강(鎭江) 유격으로 있으면서 명에 사신으로 가는 이정귀에게 연락해 성대하게 접대하고는 자신이 지은 <팔역시>¹⁷⁾를 보여주면서 서문을 받고 싶어했다. 그리하여 이정귀는 구탄에게 <팔역시발>을 지어주었다.

병진년(1616, 광해군8) 겨울, 내가 주문(奏文)을 받들고 북경으로 갈 때 공은 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기치를 세운 채 압록강 가를 지키고 있었다. 공은 우리 일행을 맞이하여 술자리를 베풀어 행역(行役)의 고생을 위로해 주고 반가워 하며 옛 이야기를 하다가 <팔역시(八憶詩)> 한 편을 꺼내어 보여 주었다. 그 시들은 요동(遼東)을 건너온 뒤에 지은 것으로 모두 초음(楚吟)이었다.¹⁸⁾

이정귀는 구탄이 지은 <팔역시>가 요동을 건너온 뒤에 지은 것으로 모두 ‘초음(楚吟)’이었다고 했다. 구탄이 마성(麻城) 출신으로 초(楚) 땅 사람이기에 구탄의 시가 초음인 것이다. 그런데 <조선영서>에서는 구탄이 ‘이어(夷語)’를 사용해서 시를 지었다고 놀릴 수 있겠느냐고 한다.

기자가 흥범을 연역한 바가 있고 뒤에 조선으로 봉해져 그의 자손들이 백수채(白受采)를 숭상하여 문채(文彩)가 훌륭하다. 구탄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더욱 총명하고 사려를 더해 시가 대단히 훌륭한 것이 아닌가. 어찌 이어(夷語)를 썼다고 기롱할 것이라.¹⁹⁾

17) 현재 구탄이 남긴 <팔역시>의 전부는 알 수 없고 『조풍보(楚風補)』 권24, <구탄> 편에 팔역시의 인(引)과 팔역시 8편 중에서 ‘억주(憶酒), ’억다(憶茶), ’억화(憶花)’ 3편이 전한다.

18) 이정귀, 위의 책, 권41, <八憶詩跋> “逮丙辰之冬,不佞奉奏朝京師,公以遊擊將軍,建旗鼓鎭江上,置酒延勞,驪然道故,仍出示八憶詩一編,蓋度遼後作,皆楚吟也.”

19) 우순희(虞淳熙), 위의 책, 권5, <조선영서(朝鮮詠序)> “有箕子演禹洪範,後封朝鮮,

우순희는 조선 사람들이 예를 숭상하여 문체가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구탄이 조선에 들어가서 빼어난 시를 지었으니 굳이 이어로 썼다고 놀릴 수는 없다고 말한다. 구탄의 시 짓는 실력이 대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음을 사용해서 지어도 구탄의 시라면 훌륭하다고 평한 것이다. 구탄이 이정귀에게 써준 <팔역시>는 초음을 사용한 반면, <조선영>은 이어를 쓴 것이다.

우순희는 <조선영서>에서 시를 지을 때 음(音)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지난번에 원씨의 형제의 음이 남만(南蠻)의 소리와 달라 웃었는데 바로 여기의 왕무공(王無功)·백낙천(白樂天)·구탄이 원씨 형제와 더불어 음조가 같았다. 조선에 들어가서 허균의 시를 하나 얻었는데, 진거비(陳去非)와 비슷하였다. 스스로 억눌러 진거비 조(調)와 같게 한 것이 아닐까?²⁰⁾

우순희는 이 글에서 원평도와 원중도 형제의 음이 당 나라의 왕적(王績)과 백거이(白居易), 그리고 구탄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구탄이 조선에 들어가서 허균의 시를 얻었는데, 그것은 남송의 진여의(陳與義)와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외의 글자를 써서 송 나라 시를 번역했지만 필시 이런 조(調)는 없었다. 소탕비완(疎宕悲惋)해서 느낌이 더욱 깊어졌다.”²¹⁾라며 허균에게서 얻은 시가 송나라 진여의와 음조가 비슷하지만, 송나라 음을 잘 아는 우순희도 이런 조는 없었다고 단언하였다.

송 나라 시인 진여의는 황정건(黃庭堅)과 진사도(陳師道)를 배우다가

其子孫尙自愛采多文，丘大入其國，不乃益聰明·增慮思，聖於詩哉。而譏用夷耶。”

20) 우순희(虞淳熙), 위의 책, 권5, <조선영서(朝鮮詠序)> “往笑袁家弟兄，音殊不缺，政爾似此中王無功·白樂天·丘大與二袁同調，及入朝鮮，得一許筠似陳去非 將自抑同陳去非調乎。”

21) 우순희(虞淳熙), 위의 책, 권5, <조선영서(朝鮮詠序)> “余用海外字譯趙宋，必無此調，疎宕悲惋，因感彌深。”

두보(杜甫)를 배워 비탄과 정한을 담은 시를 많이 쓴 강서시파(江西詩派) 삼종(三宗)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우순희가 소탕비완하다고 평한 것이 비탄과 정한을 담은 진여의와 비슷한 조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지항이 조선의 군신들이 시를 짓기를 좋아하는데 “마디마디 처량하여 망국(亡國)의 음(音)이 많았다.”²²⁾는 것과도 상통한다. 어쨌거나 조선에 들어가서 허균을 만나 얻은 시가 송 나라 진여의의 조(調)와 비슷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일부러 진여의의 조와 비슷하게 맞춘 것이 아닐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탄은 오음(吳音)에도 능했다고 한다. 풍몽룡의 『정사(情史)』 권 6의 <구장유> 편에는 실린 내용에 소주(蘇州)의 유명한 가기(歌妓) 백육생(白六生)이 오직 오음으로만 노래를 해서 마성현의 초 땅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지만, 구탄만 그 노래를 감상할 수 있었다.²³⁾고 한다.

구탄이 1602년 허균을 만나기는 했지만, 허균에게 시를 얻은 것은 1614년 진강에서 만났을 때이다. 당시 구탄은 진강의 유격으로 있었는데, 허균이 여행하면서 진강에 있던 구탄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만났다. 이때 구탄은 허균과 여행단의 서장관이었던 김종청(金中淸)과도 시를 주고 받았다. 구탄도 허균과 김종청의 시를 받았고, 김종청도 구탄의 시 2편을 받았다고 김종청의 『조천록(朝天錄)』에 기록하고 있다.²⁴⁾

구탄은 1614년 진강에서 허균과 만난 후에 조선 조정에 조선의 시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유격(丘遊擊)이 우리나라의 시문(詩文)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호조 판서 신 유근(柳根)이 일찍이 대제학으로 있

22) 潘之恒, 위의 책, 권2, <朝鮮慧女許景樊詩集序>, “丘長孺充使朝鮮, 見其君臣日耽游詠, 按節淒楚, 多亡國之音, 而不及許詩.”

23) 龔篤清, 『馮夢龍新論』, 湖南人民出版社, 2002. 230쪽 참조.

24) 金中淸, 『苟全先生文集』, 『朝天錄』, <望江寺次丘遊擊坦 2首>, <次丘遊擊 11首>, <答丘遊擊>.

을 때 우리나라 사람의 시문을 뽑아 아무렇게나 쓴 한 권밖에 없습니다. 전례에 따라 사자관(寫字官)을 시켜 잘 베껴서 주게 하소서.”²⁵⁾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 9월 7일에 나온다. 1614년 9월 7일 실록의 기록이다. 진강에서 허균과 만난 날이 6월 3일이니 허균을 만난 이후 조선 문학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또 이틀 후인 9월 9일에도 조선의 시문을 요청했다.

정원이 아뢰었다.

“방금 예조 낭관 권척(權僉)이 와서 말하기를 ‘차관(差官)이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긴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시문(詩文)이다. 그 뜻은 구 유격이 교제한 남방의 문사(文士)들이 많으므로 장차 그 곳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처럼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 시문은 인본(印本)이거나 사본(寫本)이거나 간에 많이 얻어 가져갔으면 한다.’ 하였습니다.”²⁶⁾

구탄은 진강에서 허균을 만난 후에 조선에 시문을 요청하고 다시 자신과 교류하는 남방의 문사들이 많은 강남 지역에 조선의 시문을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탄의 관계망에 있는 명 문단의 문인들에게 조선의 시문을 보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탄은 이정귀에게 편지를 보내 이정귀의 문집을 받아 중원 문물이 번성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 이정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하기도 했을 만큼 조선 문학을 명 문단에 알리려고 노력했다.²⁷⁾

25)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6년 9월 7일. “弘文館啓曰, “丘遊擊求請東國詩文, 戶曹判書臣 柳根, 曾爲大提學時所抄東人詩文, 只有亂草一件. 依前例, 令寫字官繕寫以給.”

26)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6년 9월 9일. “政院啓曰, “卽者禮曹郎官 權僉來言, ‘差官所求之中最要, 東國詩文也. 其意乃, 丘遊擊多交南方文士, 將送其處, 故如是切求.’ 且曰, ‘其詩文, 或印本, 或寫本中, 願多得以往去’云矣.”

27) 이정귀, 『월사집(月沙集) 별집(別集)』 권5, 「간첩(簡帖)」 <寄丘遊擊書, 附丘遊擊書> “佳稿亮梓成矣, 多惠數十冊, 俾向中原文物盛處, 逢人說月沙也. 生行頗速,

따라서 이때 허균에게서 받은 시가 허균의 시인지, 『난설헌집』인지, 아니면 허균을 통해 받은 조선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구탄이 이어로 시를 지었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허균 등과 만나 수창한 시일 가능성이 높다. 이정귀에게 보여준 <팔역시>는 초음(楚吟)이었고, 조선 문인과 수창한 시는 이음(夷音)이었을 것이다.

<조선영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지항은 구탄이 이어로 시를 지어도 시인으로서는 최고라고 평가하면서, 우순희도 <조선영>에 관심을 갖고 침을 흘린다고 표현했다. 그러자 우순희는 <조선영>에 서문을 없어 출판자에게 명하여 인쇄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²⁸⁾

우순희는 <조선영서>에서 기자를 익히고 구탄을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조선영>이 구탄의 시만 실려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자를 익히고 이어로 시를 쓴 구탄을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또 제목을 굳이 <조선영>으로 지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구탄이 조선에 갔었고, 조선 문인들을 만났으며, 특히 허균에게서 시를 얻었다는 표현을 생각한다면 <조선영>은 구탄이 조선 문인들과 주고 받은 시를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순희의 문집 『우덕원선생집』 권5에 <조선영서>가 실리고 바로 이어서 <오영서(吳詠序)>가 수록되어 있는데, <오영서>에도 <조선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구탄이 <조선영>을 갖고 있었는데 반지항이 이어(夷語)로써 이왕(夷王)을 증명한다고 회롱하여 바야흐로 함께 놀렸다. 학공(壑公) 역시 오영(吳詠)으로

冀早見寄，臨風可勝依戀。”

28) 우순희(虞淳熙), 위의 책, 권5, <조선영서(朝鮮詠序)> “潘大聞憮然曰，吾數言此中數當盟主，偶忘作哲作謀作聖之自遂夷丘大，丘大自此中詩人王長也。神語虞大夷亦誕彼典屬國職方言而已。不然何由識丘大，因命梓敷其言此中，此中人習箕子，應習丘大不怪也。”

써 오(吳)를 증명하고자 하였다.²⁹⁾

『우덕원선생집』 권5 「서(序)」의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연달아 실린 글인데, 구탄이 <조선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구탄이 이어로 시를 써서 이왕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놀릴 때, 학공(壑公)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순희는 <오영서>에서 반지항과 구탄이 근래에 정자사의 객으로 머물렀다고 했다³⁰⁾. 정자사는 당시 유명 문인들이 많이 찾던 곳이다.

학공은 항주의 정자사(淨慈寺)의 승려인데, 승명(僧名)은 대학(大壑)이며 우순희·반지항과 교류하고 있었다. 우순희와 반지항이 항주에 머물면서 학공과 가까이 지냈는데³¹⁾, 우순희는 학공이 지은 <정자사지(淨慈寺志)>에 서문을 써주기도 했다.

그런데 우순희는 학공의 <오영서>에 다시 구탄의 <조선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때 홀연히 학공의 꿈에 들어와 12인을 세 번 부르니 모두 36이라. 느낌이 있어 울며 찾으니 당림(唐林)이 제왕을 수습하고 해탈하여 사리를 크게 얻은 것처럼 조선 36인의 한 명이라는 것을 기별(記別)하는 것을 기록한다.

학공은 바로 조선인이라. 숙세의 인연으로 내 숙세의 인연에 합해 전생의 시로 내 전생을 증명하는 것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오늘처럼 오나라 사람으로서 오나라 사람에게 가고 오나라 노래로써 오나라 노래를 전공하니 나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³²⁾

29) "우순희(虞淳熙), 위의 책, 권5, <오영서(吳詠序)> "丘有朝鮮詠, 景升戲令以夷語證夷王, 方與爲譏, 而壑公亦以吳詠求證吳."

30) "而潘景升·丘長孺近客其居" 우순희(虞淳熙), 위의 책, 권5, <오영서(吳詠序)>

31) 우순희 위의 책, 권3 <南屏淨慈寺序>, 권7 <蓮花洞記>, 권19 <淨慈寺造無量壽佛殿金銅佛像募緣疏>, <南屏淨慈寺建護伽藍關聖帝君祠募緣疏> 등의 글이 다수 실려 있어 학공과 우순희의 친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오영서>의 마지막 부분이다. <오영>을 지은 학공의 전생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 글에서 말하는 조선 36인은 고려 광종(光宗)이 959년에 항주의 연수(延壽, 904~975)³³⁾에게 승려 36인을 보내 유학하게 한 일에 근거한다.³⁴⁾ 연수는 항주의 영명사(永明寺)의 승려인데, 후에 영명사는 정자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바로 학공이 있는 정자사이다. 학공은 영명선사를 받들어 『영명도적(永明道迹)』을 지었는데, 우순희와 황여형 등이 교열을 맡았고 도망령이 1607년에 서문을 썼다.

학공의 꿈에 영명대사가 나타나 36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학공은 광종이 영명대사에게 보낸 36인의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한 것이다.³⁵⁾ 학공의 전생이 조선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우순희는 <오영서>에서 구탄이 조선에 갔던 일을 언급하고 있다.³⁶⁾

그리고 학공이 비록 승려이지만, 그의 시가 13국풍에 근본을 두고 있고 후한(後漢)·송(宋)·성당(盛唐)의 시가 아니면 받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학공의 시를 높이 평가하였다.³⁷⁾ 학공은 승려로도 이름이 높았지만, 시인

32) “時忽入整公夢，連呼十二者三，總三十六云，感而泣尋如唐林之拾帝蛻大得舍利，將所記朔朝鮮三十六人之一耶。是整公正朝鮮人，不妨取夙因合我夙因以前身詩證我前身矣。乃若今日則以吳人向吳人，以吳歛攻吳歛，我其爲他山石哉” 우순희(虞淳熙), 위의 책, 권5, <오영서(吳詠序)>

33) 영명선사(永明禪師)의 법명은 연수(延壽)이며, 시호는 지각(智覺)이다. 법안종(法眼宗)의 제 3조(三祖)이다.

34) 『景德傳燈錄』 권 26, 『杭州慧日永明寺智覺禪師延壽章』 “高麗國王覽師言教，遣使齋書叙弟子之禮，奉金線織成袈裟紫水晶數珠金澡罐等，彼國僧三十六人親承印記，前後歸本國各化一方。”

35) 우순희(虞淳熙), 위의 책, 권5, <오영서(吳詠序)> “時忽入整公夢，連呼十二者三，總三十六云，感而泣尋如唐林之拾帝蛻大得舍利，將所記朔朝鮮三十六人之一耶。”

36) 우순희(虞淳熙), 위의 책, 권5, <오영서(吳詠序)> “昔丘大遊箕子國，因疇數言，尙曰 鄰聖林屋九洞天，不有神禹靈書哉。此洪範所出，箕子所演而爲疇者也。”

37) 우순희(虞淳熙), 위의 책, 권5, <오영서(吳詠序)> “雖蠻夷久入中國，整公雖事竺乾先生，貌類慶喜，慧比羅什，然其詩本十三國風，非建安元嘉永徽開元之朔不奉，屏鄭哇遠燕倫，儻楚馱放吳歛，不入調，而用洞庭遊幻名吳詠，卽以證其家先生，

으로도 문명을 날리고 있었다. 『고금선초집(古今禪藻集)』과 『서호람승시지(西湖覽勝詩志)』에도 학공의 시가 실려 있다.

우순희의 <조선영서>와 <오영서>를 살펴보았는데, 구탄이 가지고 있던 <조선영>은 구탄이 조선 문인들과 만나 수창한 시를 묶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탄이 이어로 쓴 시만을 묶을 것이라면 ‘이영’이라고 이름지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탄이 조선 문인들과 주고받은 시를 묶은 것이라면 ‘조선영’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구탄이 지은 <팔역시>는 초음이었다고 했고, <조선영>은 이어로 지었다고 했으니 <조선영>은 조선 문인들의 시와 그에 수창한 구탄의 시를 모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우순희를 중심으로 한 문인 조직

우순희는 조선에 사신으로 갔던 주지번과 구탄의 관계망을 통해 조선 문학과 조선 문인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우순희는 당시 항주를 중심으로 한 문인결사조직의 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문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만명 시기에 항주를 중심으로 한 문인결사조직의 중심 인물이었던 우순희를 통해 명 문인들에게 조선 문학이 알려지게 되는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명 시기 문인들이 결성한 시사(詩社)는 경제와 문화가 번영한 금릉(金陵), 소주(蘇州), 항주(杭州), 광주(廣州) 등지에 많았는데, 그중 항주에는 유명한 문인들이 모여 있어 많은 시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항주의 많은 시사 중에서 영향력 있는 시사를 꼽자면, 남병사(南屏社), 방생사(放生社), 독서사(讀書社)가 있다. 남병사는 왕세정, 왕도곤, 도용, 왕치등, 반지항 등이 참여하고 있었고, 방생사는 우순희, 황여형, 풍몽정,

了不中漁梵伽陀也. 何至強就夷王證明詩法乎.”

반지항, 도용, 갈인량 등이, 독서사는 담원춘과 황종희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만명 시기 최고의 문인들이 항주에 모여 시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 우순회를 중심으로 방생사를 통한 관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생사는 서호방생사(西湖放生社), 또는 승련사(勝蓮社)로도 불리는데, 우순회를 비롯하여 풍몽정, 도용, 황여형, 반지항, 갈인량, 대학(大壑) 등이 주요 성원이다. 방생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방생과 시회(詩會)를 겸한 것으로, 문인과 승려가 참여하였다.

방생사는 만명 시기 4대 고승(高僧)의 한 사람인 연지(蓮池) 선사(袞宏, 1535~1615)가 주도하여 만들었지만 실제로 방생사를 문인 시사로 활성화시킨 사람은 우순회라고 한다. 우순회 같은 유명한 문인의 관계망을 통해 많은 문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방생사는 정자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정자사의 승려인 대학(大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영서>에 나오는 학공이 대학인데, 학공이지은 『정자사지(淨慈寺志)』에는 정자사를 방문한 인물과 그들의 작품을 신고 있는데, 이지(李贄)·원굉도(元宏道)·풍몽정(馮夢禎)·도망령(道望令)·황여형·반지항·우순회·전예형(田藝衡)·주이존(朱彝尊)·모기령(毛奇齡) 등 만명 문단의 유명 문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정자사지』에는 방생사뿐만 아니라 남병사의 성원들도 다수 등장하는데, 방생사나 남병사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정자사에 지내면서 활동한 문인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순회의 관계망을 파악하기 쉽다. 반지항만 하더라도 남병사의 성원이면서 지운사(芝云社)를 만들어 활동하고, 방생사의 성원이기도 했다.

이지(李贄)·원굉도·도망령·황여형·반지항·우순회 등은 허균을 직접 만난 구탄과 주지번의 관계망에 있는 인물과 겹친다. 구탄도 반지항과 함께 정자사에 머문 적이 있는데³⁸⁾, 조선 문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항주에 있으면서 조선 문학을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탄이 조선의 시문을 모으기 위해 조선 조정과 이정귀, 허균과 같은 조선 문인들에게 시문을 끝없이 요청한 것을 보면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귀고(貴稿)는 판각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십 책을 보내 주시어 중원의 문물이 성대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월사(月沙)에 대해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자못 급하게 길을 떠나야 하니 빨리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앞에 서니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³⁹⁾

이 글은 이정귀가 구탄과 주고 받은 편지의 일부이다. 이정귀가 구탄에게 보낸 편지 속에 구탄이 이정귀에게 보낸 편지의 원본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구탄은 이정귀의 문집이 판각되었을 테니 수십 책을 얻어서 중원 문물이 성대한 곳에 가져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정귀의 시문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했다.

구탄은 이정귀와 오래 편지로 교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정귀의 글을 북경에 가져가고 싶어했다. 그러던 중 이정귀가 1620년에 네 번째로 여행하면서 지은 시 100여편을 모아 『조천기행록(朝天紀行錄)』이라는 이름으로 북경에서 출판한 일이 있는데⁴⁰⁾ 구탄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정귀의 문집을 얻어서 ‘중원 문물이 성대한 곳’에 가져가고 싶다고 한 것이다. ‘교제한 남방의

38) 원중도(袁中道), 『가설재집(珂雪齋集)』 권9, <수남화거사서(壽南華居士序)> “予少觸游武昌與西陵丘長孺大鄴潘庚生等杜仰文酒之歡。記九月九日太會詞客酒人于洪山方分韻。”

39) 이정귀(李廷龜), 『월사집(月沙集) 별집(別集)』 권5, 「간첩(簡帖)」 <寄丘遊擊書, 附丘遊擊書> “佳稿亮梓成矣, 多惠數十冊, 俾向中原文物盛處, 逢人說月沙也. 生行頗速, 冀早見寄, 臨風可勝依戀.”

40) 1620년 이정귀가 4차로 북경에 들어가자 한림원수찬(翰林院修) 왕휘(王輝)가 이정귀의 문집을 보고 싶어하자 문집이 없다고 거절하는 이정귀에게 여행길에 쓴 시 100여 편이라고 달라고 하여 그것을 모아 서문을 써서 간행했다.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북경에서 책을 출판하게 된 일이다.

문사(文士)들이 많은 곳에 보내려고 한다.’는 목적을 자주 내세웠던 구탄은 항주에 모여 있던 명 문인들에게 조선의 시문을 보내려고 했을 것이다.

구탄은 오랫동안 요동에 머물며 긴밀하게 교류했던 공안과 문인들과도 소식이 잘 이어지지 않았지만, 원평도·반지방·우순희를 비롯한 공안과 문인들이 강남 지역에 모여 시시활동을 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들에게 조선 문학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탄뿐만 아니라 조선에 왔던 명 사신 중에도 조선 문학을 중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시를 가져간 경우가 있다. 1626년 6월에 황태자의 탄생을 알리는 조서(詔書)를 반포하기 위해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 강왈광(姜曰廣)이 조선에 왔다 돌아갈 때 이정귀가 써 준 증별시의 일부가 중국의 여러 문헌에 실려 있다. 강왈광이 이정귀의 시를 중국에 전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구는 진용(秦鏞)이 편찬한 『청강현지(淸江縣志)』 등 중국 여러 문헌에 실려 있어 강왈광이 귀국 후 중국 인사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방생사의 성원 중에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직접 갔던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송응창(宋應昌, 1536~1606)은 1593년 경략(經略) 병부시랑(兵部侍郎)으로 임진왜란 시기에 출정했는데, 이때 이정귀, 유몽인, 황신(黃愼)과 함께 『대학(大學)』을 강론했다. 강론에 참여한 명군 막부의 사람들은 송응창을 비롯해 양명학에 경도되어 있어⁴²⁾ 『대학』을 양명학과 정주학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토론하고자 한 것이다.

3월, 안주(安州)에서 처음 만나고부터 9월에 경략이 압록강을 건너간 뒤 비로소 조정으로 돌아오기까지, 그사이 예닐곱 달 동안 이불을 나란히 덮고 잠을

41) 이 시구를 인용한 중국 문헌은 裘君弘, 『西江詩話』, 施閏章의 『學餘堂集』, 汪有典의 『明忠義別傳』과 『史外』 등이 있다. 이창숙, 「姜曰廣使行文學攷」, 『규장각』 47, 2015, 157쪽.

42) 이정귀(李廷龜), 위의 책, 권19, <대학강어(大學講語)>, “蓋天朝多尙陸氏之學, 經略學於王陽明之門”

자고 고삐를 나란히 잡고 말을 몰면서, 비록 도로에서 기숙(寄宿)하고 전란으로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경적(經籍)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한 한묵(翰墨)으로 서로 즐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물에 감촉하여 회포를 일으키고 서로 수창(酬唱)하여 읊은 시 약간 수(首)를 모아서 한 질(帙)로 묶고 『삼사수창록(三槎酬唱錄)』이라 이름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번고를 겪는 중에 유실된 작품들이 자못 많아 내가 지은 것들만 수습하여 아래에 수록한다. 《대학강어(大學講語)》는 송 경략(송응창)이 군중에서 상재(上梓)하여 한 본(本)을 인간(印刊)하여 우리에게 주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렸기에 등본(謄本)을 가져다 문집에 수록하였다.⁴³⁾

1593년 송응창과 그 막부에 있던 명 나라 사람들, 그리고 조선 문인 이정귀, 유몽인, 황진이 때때로 시를 수창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사수창록>이라고 이름 붙여 엮은 시집은 잃어버리고 이정귀가 지은 시를 수습하여 문집에 실었다고 하는데, 44편 65수의 시가 실려 있다. 이정귀의 문집에 실려 있는 것이라 대부분 이정귀의 작품이지만, 명 나라 사람들의 원운(原韻)도 남아 있다. 송응창은 <삼사수창록>에 서문을 써주고⁴⁴⁾ 인쇄해서 이정귀 등에게 한 부를 주었으니 인쇄본은 중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갔을 것이며, 항주에 머무는 동안 이 시집을 방생사 성원 및 항주의 문인들에게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1593년 후 송응창은 항주로 돌아와 서호에 은거했는데, 아들 송화경(宋化卿)·송직경(宋直卿)과 함께 방생사에서 활동하면서 우순희와도 교류했

43) 이정귀(李廷龜), 위의 책, 권1, <삼사수창록(三槎酬唱錄)> “自三月會於安州, 至九月經略渡江後始還朝, 其間六七朔, 聯衾而宿, 並轡而行, 雖在途道旅寓兵戈擾攘之中, 而未嘗不以經籍相隨, 亦未嘗不以翰墨相娛, 觸物興懷, 酬唱吟述者共若干首, 彙爲一帙, 名之曰三槎酬唱錄, 厥後屢經患故, 遺失頗多, 只收拾余所製錄于左, 大學講語, 則經略自軍中鋟梓, 印一本以贈, 而今亡之, 只取謄本錄諸文集云.”

44) 이정귀(李廷龜), 위의 책, 권51, <秋浦黃公行狀> “有酬唱贊詠之作, 經略製序文以給, 稱之以端敏誠慤之士.”

다.45) 방생사의 성원인 황여형이 송응창 묘지명을 써주었으며 송응창과 두 아들은 연지 선사와 방생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4. 결론

명 문인들과 폭넓게 교류한 허균은 조선의 문학을 명 문단에 알리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허균과 교류한 주지번, 구탄이 그들의 관계망을 통해 2차, 3차로 조선 문학을 중국 강남 지역에까지 알릴 수 있었다.

허균과 교류한 명 문인 중에서 특히 구탄은 <조선영>이라는 책을 묶고 우순희가 서문을 써주었는데, <조선영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구탄이 조선에 가서 조선 문인들과 수창한 시를 묶은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구탄의 문집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조선영>의 존재도 알 수 없지만, 허균과 교류한 명 문인 구탄이 조선 문학을 명 문단에 알리려는 노력을 알 수 있다.

우순희의 문집에 실린 <조선영서>는 항주 지역의 문인들과 우순희 관계망 안의 문인들에게 두루 읽혔을 것이다. 따라서 우순희를 중심으로 한 문인 관계망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선영>과 <오영서>만으로는 중국 강남 지역에 조선문학의 전파 가능성을 살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이후에 허균과 접촉한 명 문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상세히 파악하여 한중 문학교류의 일면을 조금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겠다.

45) “宋桐江公，留飲，談東征之事甚悉，平壤之捷，司馬公之力也。” 費元祿，『吳越紀行』，〈萬曆辛醜年 二月 二十九日〉；“吾與吾弟僧孺·宋化卿·鄭人翁輩入公社，名法兄弟。” 우순희(虞淳熙)，위의 책，〈古松筠泉兩公同住持序〉；王錫爵，『王文肅公文集』〈宋應昌神道碑銘〉，虞淳熙，위의 책，〈明宋仲子室許昭懿墓志銘〉. 李小榮，『晚明虞淳熙西湖結勝蓮社諸問題補論』，『閩江學院學報』 권39, 56쪽 재인용.

참고문헌

- 許筠, 『惺所覆瓿藁』, 한국고전번역원.
- 李廷龜, 『月沙集』, 한국고전번역원.
- 金中淸, 『苟全先生文集』, 경인문화사, 1999.
- 최강현 역, 『국역 을병조전록』, 국립중앙도서관, 2005.
- 袁宏道, 『袁中郎集』, 上海古籍出版社, 1989.
- 袁中道, 『珂雪齋集』, 上海古籍出版社, 1989.
- 虞淳熙, 『虞德園先生集』, 四庫禁燬書叢刊, 北京出版社, 2000.
- 黃汝亨, 『寓林集』, 四庫禁燬書叢刊, 北京出版社, 2000.
- 顧天垞, 『顧太史文集』, 四庫禁燬書叢刊, 北京出版社, 2000.
- 潘之恒, 『巨史』, 四庫全書存目叢書子部. ;194 齊魯書社, 1995.
- 안나미, 「17세기초 공안파 문인과 조선 문인의 교유」, 『한문학보』 20, 2009, 419~451쪽.
- 이창숙, 「姜曰廣使行文學攷」, 『규장각』 47, 2015. 157쪽.
- 龔篤淸, 『馮夢龍新論』, 湖南人民出版社, 2002.
- 徐 林, 『明代中晚期 江南士人社會交往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6.
- 李小榮, 「晚明虞淳熙西湖結社諸問題補論」, 『閩江學院學報』 39, 2018.
- 鍾林斌, 『公安派 研究』, 遼寧大學出版社, 2001.
- 何宗美, 『公安派結社考論』, 重慶出版社, 2005.
- _____, 『明末清初 文人結社研究續編』, 中華書局, 2006.
- 黃公元, 「從明末四大高僧看永明延壽對晚明佛教的深刻影響」, 中國民族宗教網, 2017.

ABSTRACT

Heo Gyun's Patterns of Literature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Late Ming Dynasty Woo Soonhee(虞淳熙)

Ahn, Na-mi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Imjin War), Joseon and Ming dynasties had direct and close exchanges. In particular, literature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was actively conducted by Joseon literati who visited the Ming Dynasty as an official diplomatic mission or received envoys from the Ming Dynasty, among which Heo Gyun actively introduced Joseon's literature to the Ming Dynasty.

Heo Gyun compiled Joseon's poems as well as his older sister Heo Nanseolheon's poems and delivered them directly to writers of the Ming Dynasty who were interested in Joseon literature. In the process, Joseon's literature was spread through the association of writers from the literary circles of the Ming Dynasty, focusing on Ju Jibeon (朱之蕃) and Gu Tan (丘坦), who met Heo Gyun in person and encountered Joseon literature.

Writers from the Ming Dynasty never visited Joseon, but they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Joseon's literature and discuss and criticize it together. They again spread Joseon's literature to other writers.

Among them, Woo Soonhee, a renowned writer who has a personal network with Ju Jibeon and Gu Tan, added a preface (序文) to the collection of poems titled *Joseonyeong* (朝鮮詠). Woo Soonhee had an influential literary organization in Kangnam, which was the center of literature at that time.

Ju Jibeon and Gu Tan, the envoys of the Ming Dynasty who met Heo Gyun of Joseon in person, introduced Joseon's literature to their writers in the second phase. The literary organization of the Ming Dynast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interest of writers of the Ming Dynasty

in Joseon literatur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Joseon literature to their writers in the second and third rounds of propagating Joseon literature to Heo Gyun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Heo Gyun Imjin War, Literature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Late Ming Dynasty, Woo Soonhee

논문투고일 : 2020.07.22
심사완료일 : 2020.08.07
게재확정일 : 2020.08.12